

‘악귀’ 무대 경북, 영상콘텐츠 요람으로 대변신

샤인머스켓 대체할
경북 ‘**新포도**’ 온다

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 ‘속도’
인력 양성·민자 유치 등 꾀걸음
1천평 대형·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중기·스타트업 위한 인프라 조성
민간 이동형 의무실 등 안전 확보



배움엔 끝이 없다! 15일 대구 달서구 성서시니어스포츠클럽에서 열린 제26기 달서구노인문화대학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며 졸업을 축하하고 있다. 뉴스1

경북도가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화제작 드라마 ‘악귀’, 예능 ‘나는 솔로 16기 편’ 등이 안동에서 촬영됐고 배우 박은빈 주연의 ‘무인도의 디바(상주)’, KBS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문경)’ 등 100여편 이상의 영화, 드라마 등이 경북에서 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문경과 상주, 안동을 중심으로 ‘영상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영상 촬영지로서 인기를 이어가고 인력 양성, 민자 유치 등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으로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영상을 촬영한 후 편집 작업(음향, 더빙, 특수효과 등)까지 가능한 후반 작업 시설도 조성해 지역에서 촬영과 제작, 편집이 가능한 원스톱 제작 환경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이는 넷플릭스, 디즈니 등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이 급성장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영상 제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영화, 드라마에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한 선도적 대응 조치다.

먼저 국내를 대표하는 사극 촬영지인 문경새재 등 3개 야외 세트장을 재단장한다. 시멘트 공장이었던 쌍용양

회 부지를 리모델링해 현재 500평 규모 실내 스튜디오 외에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촬영이 가능한 버추얼 스튜디오를 구축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미디어 신산업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업계의 대형 스튜디오 선호 추세를 반영해 상주 경천대 관광단지 인근 부지에는 1000평 규모의 대형 실내 스튜디오와 크로마키형 야외 스튜디오 등 다양한 인프라를 만든다.

조성 예정인 리조트 시설과 연계해 배우와 제작자,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촬영장 안전을 위해 민간과 함께 이동형 의무실도 지원한다. 시·군 보건소, 소방서, 민간 이송업체 등과 협력해 간호사, 앰블런스 등을 상주시키고 촬영장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이송 가능한 안전보건 시스템을 수립한다.

안동대학교 등 영상 관련 학과와 연계해 영상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고

현장형 전문인력을 양성으로 영상산업 분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올해부터 경북에 촬영을 오는 제작사에 대해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도내 이색 촬영지를 지속 발굴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우수 작품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에서 촬영된 인기 작품의 테마 거리 및 출연 배우 핸드프린팅, 로드샵 등을 조성해 K-영상에 매력적인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힘쓴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지역에서 한 작품이 촬영될 경우 제작비의 10%가 지역에서 소비될 정도로 부가가치와 고용 효과가 건설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국내 영상 제작 인프라와 인력의 8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경북도가 영상산업의 중심이 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농기원 글로리스타·캔디클라렛
묘목 업체 10곳과 통상실시 계약
올해부터 7년간 32만주 보급 예정

경북도농업기술원은 도 개발 프리미엄 수출용 적색 포도 신품종 ‘글로리스타’와 색다른 맛을 즐기는 젊은 층을 겨냥한 사과맛 포도 ‘캔디클라렛’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15일 묘목 업체 10곳과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통상실시로 인한 총 판매예정 수량은 글로리스타 21만주, 캔디클라렛 11만주 등 32만주(면적 320ha)로 올해부터 7년간 보급한다.

‘글로리스타’ 품종은 9월 하순-10월 상순에 수확, 포도알이 크고 당도가 20브릭스(Brix) 정도로 높으며 청량한 식감을 가진 송이 전체가 붉은색으로 착색이 잘되는 수출 주력 품종이다.

‘캔디클라렛’ 품종은 사과처럼 아삭 아삭한 식감으로 기존 품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주향색 포도다.

지난해 기준 전국 포도 수출량은 3800t, 수출액은 4600만달러로 전년보다 34.5% 증가했으며 경북은 3535만달러로 전국의 77%를 차지하는 수출 중심지다.

그러나 샤인머스켓 품종이 수출량의 약 90%를 차지했으며 중국산 샤인머스켓이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에 대량 유통되면서 재배 농가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차별되는 새로운 품종으로 수입포도 품종을 대체하고 종자주권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인공교배와 특성 조사·연구를 시작, 경북 수출 포도 1호 레드클라렛 등 10품종을 육성해 4품종 30만4000주를 보급했다.

올해부터 구미, 김천, 상주 등 3개소를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경북도 육성 포도 수출 시범단지를 조성, 수출 규격품 생산 기술매뉴얼 보급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육을 선점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TK신공항철도 국토부 투자 예타대상 선정

2030년 공항 개항 맞춰 완공 목표
4월경 최종 여부 결정, 절차 만전

대구·경북 신공항철도(이하 신공항철도)가 15일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

회에서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후속 조치이다.

신공항철도는 이후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면 철도건설을 위한 필수과제인 예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신공항철도는 TK신공항 핵심 접근 철도망 확충을 위해 총사업비 2조7382억원을 들여 대구-TK신공항-의성까

지 64.6km를 복선철도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공동 건의해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로 반영됐으며 비수도권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5개 선도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다. 같은해 11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으며

TK신공항 수요 등을 반영해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게 됐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오는 4월경에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절차로 추진하게 된다.

신공항철도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급 급행차량이 투입될 예정이며 신공항 개항에 맞춰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TK신공항철도가 개통되면 최고속도 180km/h로 최단 시간에 TK신공항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이 구축돼 신공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아울러 달빛철도(대구-광주), 경부선, 중앙선으로 연계돼 남부경제권 구축 및 지역경제 발전을 이끄는 대구굴기 핵심 프로젝트가 된다.

김대영 교통국장은 “신공항철도는 대구 미래 50년을 내다보는 TK신공항 핵심 철도망 구축사업”이라며 “국토부,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해 신공항철도가 공항 개항시기에 맞춰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wondrumkakao@daum.net

1975년 서울, 2005년 인천에 이어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 유치
(기초지자체 중 최초 개최)

글로벌 대구경북신공항
배후 중심도시로 도약

2024년 경북도민체전,
한중일 주니어종합경기대회 개최

새 희망
구미시대

글로벌 명품 스포츠 도시로 도약!

GUMI

제2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2025년 5월 구미시 개최

41만 구미 시민의 염원에 힘입어 2025년 5월,
구미시에서 제2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펼쳐집니다

구미시

윤두현, 단통법 폐지 여파 '소비자 피해' 단속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준법 내 소비자 보호 조항 이관 통신비·단말기 비용 절감 일조



국민의힘 윤두현(사진) 국회의원은 15일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선택약정 할인 제도 유지, 부가서비스 강제가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문가 등과 함께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연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은 폐지되더라도 존속해야 할 규정들은 현행법에 담아야 할 규정들이 폐지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선택

약정 할인제도와 부가서비스 강제가입 금지 조항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단통법 폐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촉발해 이용자 후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 휴대폰이 해외로 밀수출되는 것을 막는 수출방지 조항도 개정안에 담았다.

윤두현 의원은 "스마트폰+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등장했을 만큼 국민이 부담하는 통신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단말기 가격"이라며 "단통법은 소비자 후생을 저하하는 법안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단통법 폐지로 생각지 못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후속 대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정책 결정이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앞으로 국민과 민생의 관점에서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한창섭, 행정학회 공로패 '행정 발전 앞장'

"지속적 정책연구로 국민의 더 나은 삶 조성에 이바지할 것"

국민의힘 한창섭 상주·문경 국회의원의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한국행정학회으로부터 한국행정학회와 행정학회로부터 한국행정학회와 행정학회에 큰 기여를 한 공로로 '공로패'를 수상했다.

한국행정학회는 행정학 분야에서 연구와 지식 교류를 통해 사회의 발전과 국민들의 나은 삶을 위해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한국 사회과학계의 최대 학회로 알려져 있으며 한창섭 예비후보는 한국행정학회 부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학회와 행정안전부의 공동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관학 협력과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한 예비후보는 이날 공로패 전달식 자리에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행정문제에 관한 정책연구 활동으로 한국행정학회 및 대한민국 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그 동안의 행정경험과 풍부한 중앙인맥을 통해 지역에 쌓여있는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창섭 예비후보는 연일 시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지역 내 광복 행보를 이어오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을 모두 경험한 '행정전문가'로서 문경·상주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임창원 기자changwan12@naver.com

도의회, 17개 광역시도서 "APEC 경주 유치 성공" 한목소리

1차 임시회 개최, 13개 안전 심의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등 개정 촉구 배한철 "골고루 잘사는 지방" 강조

경북도의회는 15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경북도의회가 제출한 '폐교 재산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안' 등 13개 안전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주요안건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인력 근거 마련',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 대표발의 제도 도입', '이민청 설립 및 광역비자 제도 전면 도입', '국가인권위원회 시·도별 인권사무소 설치' 등으로 광역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만큼 지역을 넘어 국가적 현안들을 다뤘다.

특히 배한철 의장은 신설 학교용지 매입비의 1/2을 시·도가 부담하고 있는 만큼 최근 인구 감소 추세 가속화에 따라 지방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폐교 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시 시·도가 경비를 부담한 비율만큼 재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경북도의회 APEC 경북도 유치 특별위원회'는 개최장소가 경주인 점을 활용해 경북도·경주시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에 "2025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부스 설치 및 관련 자료 배부 등 홍보활동에 주력

해 눈길을 끌었다.

배한철 의장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지방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전국 각 광역시·도의회 의장들과 힘을 모아 전국 곳곳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의 나라를 만들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활동이 도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지역소멸 타파... 농업·농촌 살리기부터

이만희 국민의힘 예비후보 농지법 개정 등 공약 발표



경주여건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 △스마트팜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첨단 농업의 보급 확대 △내실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으로 농업·농촌의 고부가가치 창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3선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이만희(사진) 예비후보가 1호 공약으로 지역 구인 영천과 청도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역소멸위기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 해결 없이는 지역소멸위기 극복도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농업·농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에는 △과도한 거래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농지법' 개정 △농작물재해보험 보장품목 및 지원 확대 △농기계 양성 지원 확대 및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활성화 정책 추진 △농촌지역 공공목욕탕 건립 등

장종길 기자jk2929@naver.com

교육·취업·정주 누려 머물고 싶은 김천

김오진 국민의힘 예비후보 '김천 그랜드 비전' 공약 발표



윤석열 정부에서 관리비서관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지낸 김오진(사진) 국회의원의 예비후보가 15일 공약 발표 회 겸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예비후보는 스쳐 가는 김천이 아니라 '찾아오는 김천, 머물고 싶은 김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천 그랜드 비전(BK? OK! 김오진 이라면 OK! 김천 그랜드 비전)'은 '태어나 일평생을 살면서 교육이나 취업, 문화, 여가, 의료 등 모두 누릴 수 있는 김천'으로 만들기 위한 다섯 가지 공약으로 구성됐다.

'스마트 교통물류 거점도시 김천', '미래선도 첨단산업도시 김천', '미래형 인재양성 교육도시 김천', '생활낙원 안심환경 행복도시 김천', '맞춤형 통합 보건요리서비스 건강도시 김천'

등이다.

전국 전 지역 접근이 가능한 물류거점 구축 및 상업·주거·문화 기능을 살린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 특구·산단 및 우량 기업 유치, 지역 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역 내 대학에서 길러내는 '입학에서 취업까지' 논스톱 산학협력 시스템 구축, 고령화·노령화에 대응하는 요양병원 등 특수병원 또는 종합병원 확충, 주민들의 거주 환경과 문화, 여가 등 생활 편의시설 업그레이드 등이 공약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공약 발표 후 김오진 예비후보는 지역 언론 기자들과의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국가산단, 테마파크 유치, 제조공장 유치 등 공약 관련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경주 보문단지 내 선정성 논란 조형물 철거

정경민 의원이 경북도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경주 보문단지 내 설치 조형물이 최근 철거됐다.

경북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정경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북도문화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주 보문단지 내에 설치된 낮 뜨거운 조형물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조형물은 공사가 지난 2021년 제주조각공원으로부터 임대형식으로 가져와 설치했으며 당시 감사에서 정 의원이 조형물이 설치된 경위와 작품의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산책로에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감사 결과로 채택했다.

공사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23일 작품의 선정성에 있어 가장 많이 논란이 됐



던 2점의 조형물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가족 단위 또는 남녀노소 관광객이 많이 찾는 호반 산책로에 낮 뜨거운 조각상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보문단지는 경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제1호 관광단지로서 앞으로도 그 위상에 걸 맞는 사업들이 전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정보산업의 핵심기술!

(주)대신측량기술이 이끌어 갑니다!

(주)대신측량기술
DAESHIN SURVEY ENGINEERING CO., LTD

본사 경북 포항시북구 중흥로267번길 16
TEL : (054)283-4870~1
FAX : (054)283-9915

경주지사 경북 경주시 태종로 685번길 31 2층
TEL : (054)624-2225
FAX : (054)771-2251

지적사업본부 본부장
오연진
HP : 010-3528-1335
E-mail : yunjin1335@naver.com

- ◆산업단지 확정측량
- ◆구획정리 사업지구확정측량
- ◆주택단지(아파트) 확정측량
- ◆준공현황측량
- ◆구획정리 사업지구 분할 및 경계복원 측량
- ◆골프장 현황 측량 및 확정 측량

www.dssurvey.net

경북도,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 강한 의지

'K-드림 협업체' 발대식 개최 대학·기업 유·취업 연계·협업 지역서 유학·취업·정주까지 선순환 체계구축에 정책제언

경북도는 15일 도청 호국실에서 도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케이(K)-드림 협업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K-드림 협업체는 도-호찌민시 한국교육원·대학·기업-해외유학원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했다.

경북도는 도내 일반대·전문대에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우수한 해외 인재와 함께 지방을 살리는 새로운 지방시대의 서막을 올렸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경북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과 지역 대학 및 기업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협업을 기반으로 해외 인재들이 경북에서 유학부터 취업·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구축에 대한 정책제언이 이어졌다.

전문가 중 2명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하고 해외와 다른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발대식에 참여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였다.

경북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케이(K)-드림 협업체'는 앞으로 지역·대학·기업 간의 연계·협업을 기반으로 경북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 정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F-2-R)와 연계해 지역기업 취업을 전제로 지역 대학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해외유학생 계약학과' 신설·운영, 교육 발전 특구와 연계한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맞춤형 규제 특례 발굴, 해외 주요 기관과 해외 우수대학을 직접 방문해 해외유학생 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적극 확대

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분산 활동 중인 해외인력 유치 주체들을 하나로 묶어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 우수인력들이 우리 지역에서 교육받고 취업·정착해 지역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에 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도내 37만개 업체 대상 사업체 통계조사

내달 12일까지 매출액 등 9개 항목

경북도는 1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지역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경북도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조사기준일(2023년 12월 31일) 현재 경북도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약 37만개)를 대상으로 해마다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사업장 대표자, 창설연월,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매출액 등 9개 항목이며 이 중 사업장 대표자, 창설 연월, 조직 형태와 매출액 등 4개 항목은 행정자료로 대체해 조사 대상 사업체의 응답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정우 경북도 메타버스크과국장은 "사업체조사는 지역별 사업체 매출액, 종사자 수 등을 파악해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 수립과 산업 구조 변화 등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며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통계작성은 조사대상업체의 성실한 응답에서 시작되므로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을 부탁드리며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제33조 비밀의보호)에 따라 철저히 보호됨은 물론 오직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니 안심하셔도 된다"며 조사 협조를 당부했다.

조사 결과는 오는 9월에 잠정결과로 공표하고 12월에 확정할 계획이며 경북도 사업체 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홈페이지 또는 080 콜센터 전화(080-001-2024)로 문의하면 된다. 운영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로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문의 가능하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교육청, 도내 모든 학교 신학기 준비 '착착'

경북교육청은 이달 중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신학기 학사 운영 안정화를 위한 '새 학년 교육계획 준비 주간'을 5일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새 학년 교육계획 준비 주간'은 교육활동 제반 사항의 사전 준비를 통해 전 교원이 함께 참여해 학교 비전과 교육과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학생 중심 미래형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기간

이다.

유·초등학교는 19일부터 22일까지, 중·고·특수학교는 15일부터 21일까지 각 5일간 학교 일정에 맞게 운영한다.

이 기간에 △학사 일정 협의 △학년 교육과정 수립 △학생 주도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 방법 논의 △업무 분장과 예산편성 확인 등 1년의 교육활동에 대한 준비를 통해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새 학기를 준비하게 된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안전 등 학교 준비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준비 점검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신학기 운영, 교권 보호, 맞춤형 자율 평가, 학생 건강, 학생 안전, 학교폭력, 늘봄학교, 시설물과 실험실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학교 현장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개혁 과

학생 안전·학폭 등 점검단도 운영 교육개혁 과제 현장 안착 지원 예정

제의 신학기 현장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도내 모든 학교의 안정적이고 온전한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노력에 감사한다"라며 "앞으로도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 문화를 통해 경북교육이 세계교육 표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대구로 시집간 군위군, 경북 친정나들이

이철우 도지사, 김진열 군수와 8개월 만에 첫 만남

경북도는 15일 오전 김진열 군위군수와 군청 간부들이 도청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내방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열 군수와 군 공무원이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500만원)을 이철우 도지사에게 쾌척하며 고향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이 자리에는 군위 출신 도청향우회 회장인 오상철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향우공무원들도 함께했다.

지난해 7월 1일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된 이후 8개월여 만에 첫 만남을 가진 이철우 도지사와 김군수는 그간의 소회를 밝히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온 이들을 그냥 보내기가 못내 아쉬워 오찬까지 함께하며 남은 회포를 풀었다.

이날 김진열 군수는 "비록 몸은 대구시에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고향인 경북도에 있다"라며 "기부금이 얼마 되지 않지만 저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자 경북도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경북도와 교류를 지속해서 고향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시집 보낸 딸이 오랜만에 친정 부모를 만나 온 듯 설렌다. 대구로 시집 보낼 때는 생니를 뽑는 심정이었는데 지금은 군위가 대구의 중심이 돼 있어 기쁘다"며 "경북도와 군위는 어디에 있던 언제나 한 가족이다. 앞으로 대구경북신공함을 비롯해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북교육청, 재난 대응 전문성 'UP'

경북교육청은 15일, 16일 영덕군에 있는 경북도교육청해양수산연원에서 교육지원청 재난관리 업무 담당자 23명을 대상으로 '재난 대응 전문성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날 연수는 재난관리 분야별 정책 설명과 지난해 기상이변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등 재난·안전사고 사례 중심의 재난 예방·대응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북안전

생활실천시민연합 유재용 대표의 '재난 책임기관의 역할과 책무',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최수환 차장의 '교육시설별과 교육시설 안전관리' 특강을 비롯해 △재난 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법정 교육) △고능도 미세먼지 대응 △재난 사례별 대응 △재난 발생 시 신속 전파와 후속 조치 △학교재난상황관리시스템 활용 방안 등 재난관리 전문 분야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다문화 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경북교육청은 15일 도 교육청 307호 회의실에서 다문화 교육 관련 전문가, 교원, 학부모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다문화 교육 정책추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24년 다문화 교육 기본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2024년도 3대 추진 과제로 설정한 다문화 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다문화 감수성 교육 강화, 지역사회 연계 다문화 교육

통합과 활성화를 바탕으로 세부 추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2024년 지정된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유치원 27개 원, 초·중등 34교)와 한국어 학급(27교, 57학급)이 학교 현장의 다문화 교육 선도모델을 마련하고 중도 입학 및 외국인 가정 자녀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교육해 조기 적응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사용하면 할수록 다다익선 충전식 카드형 은누리상품권

앱(APP) 메인화면에서 가맹점찾기 클릭해보세요!

상품권충전, 카드등록도 완료하셨어요? 이젠 시장에서 카드만 굶으세요!

1. 가맹점 찾기
2. 지도로 보기

고객 어디서 사용 가능하나요

현금 없이 카드 하나만 있으면 OK!

- ① 10% 특별할인
- ② 전통시장 소득공제 50%
- ③ 카드사용실적 반영

전통시장·상점가 쇼핑의 필수템! 휴대편으로 충전하고 내 카드로 결제하는 은누리상품권

STEP 1. 회원가입

1. 앱 다운로드
2. 회원가입
3. 본인인증
4. 카드등록
5. 충전
6. 결제
7. 결제내역 확인

설 명절 맞이 은누리상품권 구매안도 변경

현행 월별 개인 할인구매한도 **지류형 100만원-할인율 5%, 카드형 150만원-할인율 10%** → **변경 월별 개인 할인구매한도(적용기간 2024.1.20~2024.12.31) 지류형 150만원-할인율 5%, 카드형 200만원-할인율 10%**

“지방세 체납 꼼짝마!”… 대구시, 빅데이터 활용 징수 강화

납부능력 따른 맞춤형 징수 추진 온라인·가상자산 체납처분 확대 생계형 체납자에 경제회생 지원

대구시는 안정적인 세입목표액을 달성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자 납부능력에 상응하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추진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징수전담자를 지정한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이월체납액 756억원 중에서 471억원을 징수(징수율 62.3%)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의 성과를 올렸다.

올해도 대구시는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연 2회(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 설정하고 3월부터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체납금액별로 30만원 이상 체납자 관리사업 제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 금지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호화생활 체납자 등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을 실시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세 상승·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청, 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번호

판 영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하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지원되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체납자의 과거 5년간 자료(과세, 체납, 신용정보 등)를 수집해 회수 가능성 분석을 통해, 체납회수등급과 재산, 소득 등에 따른 징수활동을 차별화하고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악기를 비롯해 가축, 의료기, 원자재, 산업용 기계 등 동산도 부동산처럼 등기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산업용 기계 등 고가의 등기된 동산을 전수조사해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증가된 온라인 전자상거래 매출채권과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더욱 확대하는 등 현대인들의 생활패턴에 맞춰 징수활동을

을 더욱 첨단화할 예정이다.

한편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 경제 회생과 사회복귀 연계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황순조 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방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는 고마움을 전하며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세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예를 통한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천군, 안전한 먹거리·위생 환경 조성 ‘힘’

소비자식품 명예공중감시원 위촉, 2년간 업소 점검 등 활동

예천군은 지난 14일 소비자식품 명예공중감시원 정기 및 신규 위촉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정기교육은 ‘먹거리 안전관리 감시체계 강화’ 및 ‘공중위생업소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시업무 수행’에 적합한 지식과 자질을 갖춘 우수 감시인력을 육성하고 위생업소 수준 및 서비스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실시됐다.

이날 직무교육은 △감시원 자격 및 임무 △감시원 활동·감시요령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등으로 감시원 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

용 위주로 진행됐다.

교육을 받은 11명의 감시원은 향후 2년간 예천군 지역 내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상태 지도·점검, 안전사고 예방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박상현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교육 인력을 육성하고 위생업소 수준 및 서비스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실시됐다. 이날 직무교육은 △감시원 자격 및 임무 △감시원 활동·감시요령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등으로 감시원 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북, 저출생과 전쟁 선포… ‘온종일 돌봄체계’로 돌파 시도

김학홍 행정부지사 긴급회의 소집 기본 전략구상·향후 로드맵 검토

경북도가 저출생과 전쟁에 박자를 가하고 있다.

경북도는 15일 아침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전략구상 및 향후 로드맵에 대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저출생과 전쟁본부에서 그간 마련한 기본 전략구상과 오는 20일에 개최 예정인 저출생과 전쟁 선포식에 대해서 브리핑한 후 실·국별 의견 제시와 역할 분담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됐다.

도가 마련 중인 기본구상은 주로 육아와 주거 부담 해소에 중점을 둔 것으로 특히 도가 시범모델로 추진 중인 경북형 온종일 돌봄체계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서 범도민이 참여하는 저출생과 전쟁 선포식 행사의 준비상황도 분야별



로 보고돼 실·국별 대응방안과 중요사항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김 부지사는 “저출생과 전쟁은 담당부서만의 일이 아니다. 저출생과 전쟁

본부는 종합상황실이다. 도의 모든 분야에서 역량을 집중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선포식이 기록제가 돼

향후 기본구상에 포함된 사업의 구체화와 지속력 있는 실행에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봉화 의용소방대원, 차량 화재 초동 진압해 큰 피해 막았다

창평터널 진입 전 현장 확인 정의용 외 2명 적극적 대처

상갓집 방문 후 귀가 중이던 봉화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들이 달리던 차량 화재를 진압해 인명 및 재산피해

를 사전에 막았다.

봉화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2시 10분경 봉화에서 춘양방면 창평터널 진입 전 그랜저TG 차량 엔진룸에서 흰 연기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를 목격한 정의용 봉화소방대원연합회장과 대원 2명(최병덕 소전의용

소방대 방호부장, 김위련 분천의용소방대 대원)이 분천의용소방대원 차량에 비치하고 있던 차량용 소화기 2대를 이용해 초기 화재진압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화재는 창평터널 진입로 인근에서 발생한 터라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나 의용소방대

원들의 침착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김장수 서장은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훌륭히 대처해 큰 사고를 막아 타의 모범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봉화군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문경시, 고독사 어르신들의 마지막 길 배움

지역 단체 나서 유품 정리 진행

지난 14일 푸른페자와 점촌1동행정복지센터, 문경시청년봉사단, 사회복지회 희망복지팀에서는 지난해 12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어르신들의 집에 방문해 유품 정리를 진행했다.

문경시 푸른페자원(대표 심정길, 직원 3명)과 문경시 청년봉사단(단장 김재용), 점촌1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경모), 사회복지과(과장 김재운) 희망복지팀에서는 각종 장비, 차량 2대, 인력 봉사를 통해 아무도 찾지 않는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고 정리(집안 물품)를 했다.

심정길 대표와 김재용 단장 및 김경모 동장은 “추운 겨울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명복을 빈다”라며 “앞으로는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면서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게 보살피겠다”라고 전했다.

김재운 사회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의



집에 직접 방문해 유품 정리를 해 주신 대표 및 단장, 동장님, 희망복지팀 등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게 살펴보겠다”라며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70604-중-326호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한방으로 치료한다

장정불로단(壯精不老丹), 하루 2번 간편복용으로 중년 남성의 고민 해결

고개 숙인 중년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조루·발기부전·전립선 질환·만성피로 등 여러 가지 남성 질환을 위한 한방 치료법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화제다.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강남행복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장정불로단이 바로 그것.

장정불로단은 <만병회춘> 고전에 나온 연령고본단(延齡固本丹) 처방을 가감하여 산수유, 구기자, 맥문동, 천문동, 복분자, 파고지, 숙지황 등 20여 가지의 약재로 처방한 약이다. 이 약은 중년 이후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소모된 정기신혈 진액의 원천을 보충해 준다.

이 원장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운동 부족, 흡연과 음주 등으로 중년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로와 권태를 호소하며, 성적 자신감까지 잃은 남성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도의 정신활동으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를 겪고 있는 전문직 남성들에게도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모된 기혈진액을 보충,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세포의 생리 활성이 떨어지면서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기능이 약해진다. 이에 따라 신체조직과 장기의 전반적인 신진대사기능이 저하되고, 피부와 모발 및 근육은 건조해지며, 뼈도 성글어진다.

결국 몸의 여기저기가 아프고,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며, 정신적인 피로까지 호소하게 된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생명현상의 기본 물질인 정기 신혈 진액의 소모로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방 치료는 소모된 기

혈진액을 보충해줌으로써 세포와 조직에 생기를 불어 넣고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다. 장정불로단을 복용 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만성피로와 성욕감퇴의 경우 몸이 가벼워지고 의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발기부전 또한 개선된 사례가 많다. 특히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 남성들의 경우,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만성피로, 발기부전, 조루, 성욕감퇴, 노화 등에 효과적
한마디로 장정불로단은 우리 몸 전체에 생기와 활기를 불어넣는 한방 보양제라고 할 수 있다. 만성피로에 지친 남성, 발기 부전이나 조루, 정력 부족을 호소하는 남성에게 효과가 있

으며, 흰머리, 잔주름, 피부 탄력 저하, 성욕 감퇴 등의 노화 현상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중풍 후유증의 병후 관리나 정액 부족 등으로 인한 남성 불임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잘 낫지 않는 전립선 질환의 경우 이수비료탕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정불로단은 일반 탕약이 아닌 환약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2번 복용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체질과 나이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은 한방치료법이기에 때문에 중년 남성들에게 큰 효능을 얻고 있다.

강남행복한의원 ☎ 02-512-6510
www.kangnamh.co.kr

경주, 전국 유일 물정화 특허기술 '이목집중'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 열려
정부·전국 지자체·기업·학계 등
물 관련 관계자 1000여명 한자리
시, 하수처리·수질연구시설 소개
주낙영 시장 "국제정세 발맞춰
선진환경기술 개발에 기여 중"



이 이를간 110개의 부스를 운영하면서
여는 때보다 열띤 물 산업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맑은물 공급에 힘쓴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에 대한 시상에 이어 환경 분
야별 신기술 사례발표, 우수기자재 전
시회가 동시에 열려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16일에는 연찬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장 및 수질연구
시설 등 선진지 견학과 불국사 등 역사
문화탐방을 진행한다.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물정화 특허기
술 및 환경부 환경신기술인·검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주시는 '경주시 물정화
기술 홍보관'을 운영하며 경주시의 특
히 물정화기술을 알리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특히 경주시 물정화 기술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 중인 ㈜급호
건설, ㈜MBT, ㈜삼우ENG 등 기업 관
계자들과 공동으로 홍보관을 운영하며
GJ-R, GK-SBR 기술을 소개하고 구매
상담회를 진행했다.

주낙영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경주시는 국제적인 물 산업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자체 물정화 기술을 개발
하는 등 선진환경기술 개발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지난
해 12월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콜롬비
아 디블라시에 GJ-R장치를 설치해 마
을주민 110여 가구에 식수를 공급하는
등 해외 물부족 해결과 물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주시는 현재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되기 위해 모
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
통문화를 품고 있는 세계문화유산 도
시이자 원자력, 전기자동차 산업 등 최
첨단 미래 산업이 공존하는 경주가 개
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20만 물산업
종사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경주시, 축제 사건·사고 예방책 마련 만전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개최
안전 점검·교통대책 검토

경주시는 지난 14일 재난종합상황실
에서 2024년도 제1차 안전관리실무위
원회를 열고 제2회 정월대보름 축제
등 상정된 2건의 행사에 대한 안전사항
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성학 부
시장과 최원학 도시개발국장 등 관계
공무원과 경주경찰서, 경주소방서, 한
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련기관이 참석해 분야별로 안전
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상정된 안전은 서천둔지에서
열리는 제2회 정월대보름 축제와 안
강 칠평전에서 열리는 제17회 시민 한
마음 문화축제 등 2건이다. 참석자들
은 사고예방 대책, 안전관리 인력 확보
및 배치 계획, 교통대책 등 안전관리계
획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김성학 부시장은 "올해도 단 한 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심의와 점검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2025 APEC은 경주에서!"... 市, 인도네시아 공식 서한 받아

연구·교육단체 2곳서 서한 발송
의향서 체결해 지속적 발전 의정

APEC 회원국인 인도네시아가 서한
문을 통해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지지의사를 밝혔다. 경주시는 15
일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트러스트'와
'발리 쿠나 산티 재단'이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지지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트러스트'
(The Indonesian Heritage Trust)
는 인도네시아 문화유산 보존을 목
적으로 관련정책을 수립하는 연구기관이
고 '발리 쿠나 산티 재단(Bali Kuna
Santi)'은 발리의 문화유산 보존을 목
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달 세계유산도
시기구 아태지역사무처와 세계유산 분
야 △조사·연구 △국제학술심포지움
△청소년 및 청년 교육프로그램 △지
식·정보공유에 대한 협력의향서를 체
결한 바 있다.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
지역사무처는 경주시가 운영 중인 국
제기구다.

경주시와 두 기관은 협력의향서 체
결을 통해 상호 간 학술역량강화 및 세
계유산 기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협
력하기로 약정했다.

협력의향서 체결 당시 이들 두 기관
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국제도시인
경주의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지지하며 경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한다"고 강조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시, 월성1호기 해체 관련 지역 주민 목소리 '경청'

해체계획서 초안 공람 진행
시청·행복센터 9곳서 확인

경주시가 월성원자력 1호기 해체 작
업을 위한 사전절차를 밟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8일부터 오는 4월 7일
까지 월성1호기 해체사업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해체계획서 초안 공
람을 진행하고 있다.

공람장소는 시청 원자력정책과를 비
롯해 감포읍, 외동읍, 문무대왕면, 양
남면, 내남면, 천북면, 월성동, 불국
동, 보덕동 각 행정복지센터 등 총 10
곳이다.

또 지역 주민들의 해체사업 이해를
돕고자 감포읍(2월 20일), 문무대왕면
(2월 21일), 양남면(2월 22일), 청소년
수련관(3월 5일)에서 4회에 걸쳐 주민
설명회도 개최한다.

월성1호기는 지난 1983년 4월 상업운
전을 개시해 2019년 12월 영구정지된
우리나라 최초의 가압중수로형 원전이
다. 해체계획서에는 안전성평가, 방사
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포함돼 있다.

경주시는 주민공람이 완료되면 주민
의견수렴 내용을 한수원에 전달하고
한수원은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해

공정회 개최 등 해체계획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시행자인 한수원은 향후
최종해체계획서와 주민공람·설명회
결과 등을 올해 안으로 원자력안전위
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
는 주민 누구나 월성1호기 해체사업과
관련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라며
"의견 있는 주민들께서는 제출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
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어르신 안전·편의에 힘쓸 것"
고현관 산내면장 '소통행정'

고현관 산내면장이 지난 13일과 14
일 이틀간 지역 내 경로당 35개소를 방
문해 어르신들에게 인사와 덕담을 나
누고 시정 홍보 사향을 전달하는 현장
소통행정을 펼쳤다.

고 면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어르신
들의 경로당 이용 및 운영상의 애로사
항 등을 청취하고 동절기에 경로당이
한파 쉼터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
록 난방기 작동 상태 점검과 더불어 경

로당 이용 안전수칙과 건강 유의사항
을 당부했다.

산내면 산원1리 경로당의 어르신들
은 "바쁜 일정에서 직접 방문해 명절
인사와 안부까지 세심하게 챙겨줘 너
무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고현관 면장은 "반갑게 맞이해 주시
는 어르신들께 감사드리고 항상 어르
신들의 의견을 듣고 애로사항도 해결
해 드리기 위해 힘쓸 것"이라며 "어르
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
도록 말씀해 주신 가르침을 잊지 않고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을진

대한민국의 **김, 울진**

2024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울진군 후포항 일원
2024. 2. 22(목) ~ 25(일)

주최 | 울진군 | 주관 | 울진군특산물발전위원회 | 후원 | 한수원·주한울진원자력본부

문의 | 울진군특산물발전위원회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연호로 47 | TEL. (054)789-5485~6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지속 성장 이끌 '100인' 대구교통공 '재난·안전관리' 역량 입증

제9기 위원 위촉·분과별 토의 주요 투자사업 대한 의견제시 예산편성 참여·운영 등 예정

대구시는 15일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제의 본격 추진을 위한 '2024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제9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장 전달,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설명, 분과별 토의 등의

시간을 가졌으며 김선조 행정부시장, 임인환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00명, 분과위원회 예산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대구시 예산편성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올해 대구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며 주민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 대구시 전체예산과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주민 의견수렴, 주민참여예산제 홍보·교육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위원들은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운영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방향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올해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속 성장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부서 검토 기간을 연장하고 부적격 제안 심사 기준을 재정비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과정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지원협의회에 전문가 그룹 참여를 확대하며 사업 선정의 적정성 강화를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신설한다. 더불어 제9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위원장·부위원장, 6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이달 말 온라인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선조 행정부시장은 "대구시는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명실상부한 주민참여예산제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올해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9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시민 여러분의 열정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우수기관 선정... 행안부 '장관상' 취약층 대상 직접적 훈련 돋보여

대구교통공사가 지난 8일 지난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마다 실시하며 총 335개 기관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대구 3호선 철곡 경대병원역에서 지진에 의한 위험개소

내 장시간 열차정차 및 화재 사고가 발생한 복합상황을 가정해 총 23개 유관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 307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연계훈련(현장·상황실 실시간 연계)을 실시했다. 현장훈련 시 국민을 직접 탈출훈련에 참여시키고 어린이와 농아인 단체 등 안전 취약계층의 직접적인 훈련 참여와 참관으로 시민 스스로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노력한 점과 훈련 전반에 걸쳐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적극 활용해 유관기관과 협력적 재난대응을 주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군위군청 직원들, 대구-경북 '연결고리 역할 톡톡히'

김진열 군수 비롯 공무원 50명 경북도청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군위군은 김진열 군수를 비롯한 군청 직원 50명이 15일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경북도청에 기탁했다고 전했다. 군위군은 지난해 7월 대구로 편입되면서 경북도를 떠났지만 고향의 의미를 되새기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대구와 경북이 서로 더 깊이 이해하고 연대할 수 있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헤어짐이 아니라 대구와 경북의 동행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발전하는 군위군을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난해 처음 시행돼 지방 소멸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



방 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 군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당초 목표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냈다. 군위군은 기금 모금액으로 지방 소멸 극복 취지를 살리기 위해 빈집 리모

델링을 통한 농어촌민박 활성화 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 올해로 2년째를 맞는 고향사랑기부금은 명예읍·면장의 고향사랑기부금 동참, 연말정산 환급, 군위 향우인들의 기부 동참 등으로 벌써부터 관심이 집

중되고 있다. 군위군은 지속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알리고 자발적 기부로 이어져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대구시,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실태 사례 홍보 '최선'

부적정 반복사례 찾아가서 안내 현장점검 때마다 확대 추진 계획

대구시는 지난 2021년부터 지역 내 16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정 사례를 찾아가서 안내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실태 사례 홍보'를 운영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실태 사례 홍보'는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초기 사업장의 조합 임원(또는 추진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합 임원의 윤리기준과 책임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분야별 점검 사례를 현장에 직접 방문에 안내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조합의 관행적 위법사항을 최소화하고 불투명·불공정한 조합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하반기 2개소를 시범 운영한 결과 '타 사업장의 점검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올바른 조합 운영에 도움이 된다', '직접 방문 설명으로 어려운 조합운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등의 높은 현장 호응도에

발맞춰 올해는 방문 개소를 매월 1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최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순차 방문할 계획이다. 대구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은 외부 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한국부동산원 등)와 시, 구·군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조합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조합행정 △운영 및 공사계약 △자금 운용 및 회계 처리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다. 지난 2021년 3개소, 2022년 6개소, 2023년 7개소 사업장을 점검했으며 총

25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239건(고발 82건,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22건, 환수조치 6건, 행정지도 128건)의 조치해 그간 정비사업에 따른 분쟁과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 올해도 재개발, 재건축 등 조합설립 인가를 득한 75개 사업장 중 조합 추진 상황 및 민원 등을 감안해 총 10개소 사업장을 선정하고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 해마다 점검 개소를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허주영 시 도시주택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운영을 위해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확대와 사례 홍보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달성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나눔의 온정'

군, 푸드뱅크·마켓 사업 동참 당부

달성군이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식품기부 사업인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기부 동참을 당부했다. 기부식품사업은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 및 물품 등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등에게 지원하는 이용자 중심의 상설 무료 마켓이다. 달성군은 푸드뱅크(농공읍 농공로 697-9), 푸드마켓(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01-6)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운영을 시작으로 해마다 취

약계층에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배분물품 건수는 약 15만건에 달한다. 박영미 희망지원과장은 "최근 치솟는 물가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개인이나 기업, 단체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나누며 희망찬 달성군을 만드는 데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량물품의 기부는 대구광역시푸드뱅크, 소규모기부 및 정기기부는 전화(1688-1377)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품은 100% 세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



도남숲1단지 어린이집, 고사리손 성금 전해

지역 취약층 위해 30만원 기부

대구 북구 국우동에 소재한 도남숲1단지 어린이집이 지난 6일 국우동 취약계층을 위해 원생들의 마음이 담긴 현금 30만원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금은 제22회 전국정가경향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받은 상금으로 원생들의 마음을 담아 원생들이

직접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해 상금을 전달했다. 이정희 원장은 "아이들과 함께 이웃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또 사회에 베푸는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

살국유사비 대구시장 군위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파워풀 대구와 함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영주, 농작물 이상기후 피해 대책 마련 '총력' 의성, 비안만세센터 시설·운영 현황 점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자협, 센터 활성화 방안 논의

박남서 시장, 송미령 장관 회동 과수 열풍방상팬 사업 농가 방문 정부 차원 '예방시설 지원' 요청

영주시는 지난 14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봉현면 하촌리 과수 열풍방상팬 사업 농가를 방문해 이상기후 종합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박남서 시장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농식품부, 경북도 및 영주시, 관계기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열풍방상팬은 서리가 내릴 때 상공 6~12m에 형성되는 따뜻한 공기를 아래로 불어내려 과원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원리를 활용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이상기상에 대응하는 '과원 피해 예방 기술확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시는 지난해 1억원을 투입해 4개소에 설치했다.

이어서 송 장관 일행은 인근에 위치한



영주농산물유통센터(거점 APC)이 동해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대구경북농협이 운영하는 영주유통센터는 부지 2만8945㎡, 건축 1만 1451㎡ 규모에 219억원을 투입, 지난 2007년 11월에 준공했다. 센터는 연간

사과 7163t, 자두 144t을 취급한다.

이날 박남서 시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농업인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송미령 장관은 "3-4월 발아·개화기 관리가 중요한 만큼 농가와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모두 이 시기에 냉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윤여상 기자bk01410@naver.com

의성군은 지난 14일 비안만세센터에서 '2024년 제1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자협의회' (이하 협의회)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지구와 추진 중인 지구의 위원장과 사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북도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최우수로 선정된 비안만세센터 시설을 안내하고 만세센터만의 특별함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시설 견학 후 각 시설물의 장점과 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수영 협의회장은 "이번 협의회는 다른 지역 운영위원장들께 비안만세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 자리를 통해 다른 시설들도 장점을 적극 도입하고 운영이 활성화돼 주민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협의회는 시설 견학을 통해 토론하는 자리가 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도 현장 위주의 견학과 토론을 통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들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안동시, 아동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집중'

학대 예방홍보·직무 교육 실시

안동시는 지난 14일 시청 대동관 2층 정보화 교육장에서 읍·면·동 아동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홍보 및 아동보호서비스의 이해' 첫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읍·면·동 아동업무 담당자 24명이 참석했으며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읍·면·동 아동업무 담당자의 일선에서의 역할과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아동보호서비스 및 각종 아동업무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읍·면·동 아동업무 담당자의 역할 △아동

보호서비스의 종류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이해 등이다. 이어 김성환 국립안동대학교 아동·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아동학대 예방과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안동시에서는 지난해 156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112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됐다. 이에 보육아동가족과는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홍보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도 꾸준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힘을 예정이다.

정진영 과장은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읍·면·동 아동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여 일선 현장에서의 업무추진을 줄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명수 기자oms727@nate.com

예천군,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더 나은 일자리 지원한다

이규삼 부군수 주제로 회의 열어 현황 파악·대상자 발굴 '머리 맞대'

예천군은 오는 3월 말까지 폐지수집 노인 현황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원활한 전수조사를 위해 지난 14일 이규삼 부군수 주재로 해당부서 및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위한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12월 28일 보건복지부 '폐지수집 노인 지원 대책' 발표에 따른 것으로 특히 지역 내 고물상 방문은 물론 읍·면 찾아가는보 건복지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폐지수집 노인 현황을 파악한 후

주소지 읍·면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서 1대 1 맞춤형 복지상담을 통해 일자리, 복지, 보건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경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개별 면담을 통해 사업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규삼 부군수는 "폐지수집 어르신 현황과 욕구를 면밀히 조사하고 일자리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폐지수집 어르신이 있으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주민행복과로 알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영양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부모 대상 교육 진행

초중 교육과정·입학정보 등 제공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5일, 16일 오전 10시 영양군종합복지회관 2층 회의실에서 초등 및 중학교 입학 예정 학부모 23가정을 대상으로 '두근두근 첫등교, 엄마야빠도 1학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부모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양교육지원청과 연계해 다문화가정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갖춘 현직 박은주 영양중앙초등학교 교사와 양혜선 영양중학교 교감과 함께 학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에게 학부모 만남의 자리를 제공해 자녀 입학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녀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행사에 앞서 영양중앙교회(목사 강동석)에서 해마다 후원하는 100만원 상당의 책가방과 실내화를 전달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새출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전달식도 가졌다. 이날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입

학 정보제공 교육, 자녀들의 학교생활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학교 탐방 및 학부모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수제청 만들기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오도창 군수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학부모 역할과 교육과정에 대해 잘 배워서 자녀들이 낯선 학교생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격려와 지지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김정태 기자tae6611@naver.com

봉화, SNS 서포터즈 모집... 23일까지 20명

봉화군이 오는 23일까지 봉화군 SNS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20명 내외로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총 4개 분야다.

모집기간은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이며 지원방법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서를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결과는 3월 4일 발표할 예정이며 활동기간은 다음달 4일부터 2025년 2월까지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봉화군의 정책, 관광, 축제, 문화 등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활동내용에 따른 원고료가 지급될 예정이다.

박현국 군수는 "지자체의 SNS 홍보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봉화군 SNS 서포터즈 모집에 많은 관



심을 가져달라"면서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을 통해 지역 사회 홍보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정형영 기자jhy4430@hanmail.net



준비된 땅 상주!

입지, 교통, 인프라, 탁월한 미래까지 상주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군사수도 건설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군사시설 최적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군사시설 최적지 상주!

최적의 입지와 교통

국토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국 2시간 이내의 접근성, 중부내륙철도 개통(예정)으로 더 빨라진 KTX역세권

원스톱 지원과 풍부한 인프라

이전사업 TF팀의 원스톱 지원과 교육, 의료, 관광, 문화, 일자리까지 부족함 없이 누리는 민군상생협력타운 건설

군사훈련 최적지

너른 평지와 저렴한 공시지가, 다양한 지형을 조화롭게 갖춰 전술작전 훈련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부지

결집된 유치 의지

범시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주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군사시설 이전 유치 홍보활동 전개



구미, 내년도 예산 3조원 확보 위해 머리 맞대

국가 투자예산 확보 전략보고회 118개 사업·5074억, 전년비 40% ↑도·중앙부처와 협력 체계 강화 교통망·교육특구 등 다분야 집중



구미시가 내년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투자예산 확보 전략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장호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3조원을 목표로 각 부서에서 발표한 주요 건의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예산 순기에 따른 단계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한발 앞선 대응을 위해 지난해보다 1개월가량 앞당겨 열렸으며 역대 최대 국비 확보 달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2025년도 국비 건의 사업은 총 118건 5074억원으로 전년 3월 보고회 대비

40% 증액된 건의액으로 역대 최대 국비 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분야별 국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경제·산업 분야는 △반도체 수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 △ABBM기반 휴먼 증강 기술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 △스타트업 파크 구축 사업 △디자인 AI 인프라(HAI센터) 구축 사업 △제조·생산 혁신 엔지니어링 클라우드 기

업 지원사업 △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 신설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신설 △1·3공단 휴먼 증강 기술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 △스타트업 파크 구축 사업 △디자인 AI 인프라(HAI센터) 구축 사업 △제조·생산 혁신 엔지니어링 클라우드 기

교육·문화·환경 분야는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지정 △2025 구미아시아 육상경기 선수권대회 개최 △구미 육상 전지 훈련장 에어돔 조성 △유휴공간 문화 재생 사업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등이다.

구미시는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정부예산 편성 흐름에 맞춰 2차, 3차 보고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향후 국비 건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국비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대내외적인 역량을 결집해 나갈 방침이다.

김장호 시장은 “정부의 지방시대 활성화 기조속에 국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기획 단계부터 사업 확정시까지 소관 부처와 경북도를 문턱이 닦도록 방문하고 국회의원 등 협력기관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익문기자ub0104@hanmail.net



정상원 상주부시장, 현장 소통행정 ‘최우선’

내서면 행복센터 방문, 직원 격려 지역 특성·주요 현안 업무 등 파악

제26대 정상원 상주부시장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지난 14일 내서면을 방문해 직원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상원 부시장은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지역 현황과 지역 특성을 파악했으며 각종 현안 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힘찬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정상원 부시장은 “항상 행정의 최일

선에서 면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익히 알고 있으며 항상 함께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겠다”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상주를 만들기 위해 읍·면·동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태경 면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내서면을 방문해서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남겨주시는 정상원 부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격려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직원 모두 친절한 자세로 주민들과 적극소통하면서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창원기자changwan12@naver.com

김천 산림조합, 주민 삶의 질 높일 ‘산림 르네상스 시대’ 연다

2024년 조림 사업 심의회 개최 낙엽송 등 경제 수종 식재 선정

김천시 산림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4일 2024년 조림 사업 올해 심는 나무(면적 133ha, 30만본)의 수종 선정과 배치 등을 논의하는 ‘2024년 향토 수종·적지 적수를 위한 조림 사업 실시 설계 심의회’를 개최했다.

조합은 올해 김천시의 조림과 숲 가꾸기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맞춤형 조림지도’와 ‘산림입지도양’을 분석해 조림할 수종을 1차로 선정했고 이번 심의회를 통해 나무 심기 현장에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심을 나무를 선정한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목재로 이용 가치가 높은 낙엽송, 편백 등 경제 수종을 심고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에 백합나무, 자작나무 등을 심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할 것을 심의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산벚나무 등 밀원수를 심을 계획이다.

이도희 조합장은 “최근 기상 이상으로 조림목에 큰 나무로 키우기가 힘들어졌다”며 “산림의 생태적인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림경영지도에 관

심을 기울여 김천시의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민래기 산림복지과장은 “나무 심기는 50년을 계획하는 중요한 일로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경제성은 물론 다양한 공익기능을 발휘하는 건강한 산림을 조성해 줄 것”을 주문하고 “지역민의 소득 창출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칠곡,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나서

웨어블 캠퍼 33대 도입

칠곡군은 악성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웨어블 캠퍼’ 33대를 우선 도입해 읍·면을 포함한 대부분 부서에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한 웨어러블 캠퍼는 ‘착용 가능한 캠퍼’로써 ‘목걸이 착용 방식’이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을 300도 녹화·녹음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기종

이다.

해당 장비는 급박한 경우에 사용되며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정당한 목적과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촬영 정보를 처리할 예정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장비 도입으로 인해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뿐 아니라 위법행위 시 고소·고발 등의 형사절차 등에도 증거자료 수집에도 활용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올바른 민원 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산불 제로 수문면 만들자” 이장협의회, 예방 캠페인 전개

이현진 성주군 수문면장은 지난 14일 이장협의회 회원 및 면사무소 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철 산불 ZERO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산불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수문면 이장협의회는 산불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지속돼 대형 산불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산림 인접지역에서 이뤄지는 농산폐기물,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폐기물 등의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 발생위험이 높은 독가촌, 사찰,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등 산불 고위험 지역 예찰과 산불 조심 마을방송을 매일 실시해 산불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이현진 면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산불로부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불 발생의 주된 원인이 입산자 실

화, 산림 연접지 소각 행위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산객과 지역 주민의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일호 기자hoyai515@daum.net

고령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회의 실시

‘고령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회의’는 센터장인 보건소장과 임상자문의(정신과 전문의 최성환), 외부 정신건강 전문가, 등록 회원 및 가족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해 사업실적과 차분기의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전반적인 센터운영 등에 대해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는 올해 주요사업인 ‘우리동네 마음보안관’ 과 자살예방사업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을 위한 활성

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우리동네 정신건강 전문가 양성사업인 ‘우리동네 마음보안관’은 우리 동네에 정신건강 지킴이로 활동하도록 다양한 정신건강교육을 운영하고 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상자와 1대 1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화기부활동과 지역사회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 마음보안관으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

김일호 기자hoyai515@daum.net

아리따움 경주점
대표 박 선 이

경주시 계림로 102
☎ 054-749-7979

아시아나스포츠
대표 최 병 진

경주시 화랑로 47
☎ 010-5588-9999

스멜스라이크브레드
대표 황 숙 향

경주시 광종길 24 127호
☎ 054-3523-1308

포항시, 국내 최고 평생학습도시로 자리매김

2년 연속 좋은정책상 수상 쾌거 전국 최초 軍 평생학습센터 운영 민관군 상호협력 성공 사례 호평

포항시가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상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관해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 어워드'는 196개 평생학습도시 가운데 시민의 삶을 바꾸는 우수한 평생교육 정책을 펼친 지자체와 평생학습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포항시는 올해 4개 전 부분을 석권하며 명실상부 경북권역 대표 도시의 면모를 다졌다.

먼저 좋은정책부문에서는 전국 최초로 해병대 1사단 군 관사 내 설치한 청림대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민·관·군이 함께하는 평생학습의 성공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아 좋은정책상을 수상했다.

민·관·군이 함께하는 청림대 행복학습센터는 군 장병 및 가족들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인근 지



역민들에게도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참여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바 있다.

이와 함께 전국평생학습도시 경북권역 대표를 맡고 있는 이강덕 시장은 그동안의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애쓴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으며 포항시 평생학습과장을 비롯해 담당자 역시 표창장을 수상하며 전 부문을 석권했다.

시는 지난 2012년 교육부로부터 평생

학습도시로 지정받았으며 전국 최대 규모의 평생학습원 시설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시가 그간 펼쳐온 평생학습 사업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50만 포항 시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대한민국 대표 평생학습도시로 거

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올해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모여 희망하는 강좌를 원하는 장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민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25년 개최 예정인 제12회 경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유치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 조성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신현기자 hshin98@naver.com

울진군,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청신호'

최상목 부총리, 에타면제 추진... 확정 시 건설 기간 7개월 단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모두발언을 통해 "경북 울진(원자력수소),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에타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정된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에타면제된 용인(반도체)을 제외한 기업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북 울진(원자력수소)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에타면제가 확정될 경우 국가산단 조성 기간이 7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번 발표로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및 기회발전특구,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선정에서 울진군이 지정되

는 데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군은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9개의 앵커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7개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입주수요를 확보하는 등 국가산단 조성의 경제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추진해 왔다.

손병복 군수는 "이번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울진 국가산단을 에타면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국가산단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 무탄소 원전 전력과 정정수소가 풍부한 울진군의 강점을 살려 기업들이 탄소중립시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상주기자 ksj09102@naver.com

청도군, 미래 100년 책임질 교육 기반 구축

평생학습행복도시 추진 보고회

청도군은 15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청도평생학습행복도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비전 및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제1대 정책 비전이자 다가올 미래 100년의 초점을 '청도평생학습행복도시'에 두고 평생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도행복현장의 실천을 통한 평생학습 문화 정착, 군민 의식 대전환으로 행복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는 청도군 평생학습정책의 주요 사업으로는 전국 최초 지역전문학과인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 운영 지원,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양성 확대, 청도평생학습행복대학 운영, 청도평생학습행복관 개관 등이 있다.

특히 올해에는 제11회 경북도 평생학습박람회가 청도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청도군민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정보를 제공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평생학습 문화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하수 군수는 "평생교육으로 군민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화되고 군민의 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 평생학습이라는 기회 제공을 통해 군민 개개인의 삶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정과 애정으로 관심을 가져주시 바란다"고 말했다.

장종길 기자 jk2029@naver.com

영천, 농특산물 판로 '뺑'

라이브커머스 유통·마케팅 지원 29일까지 액션그룹·시민 중 모집

영천시는 영천시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라이브커머스 운영을 지원해 영천시 농특산물의 비대면 마케팅 판로개척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영천시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에서 액션그룹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라이브커머스 전문교육 및 유통마케팅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 사업은 영천시 신활력사업추진단이 주관해 오는 7월까지 유통·마케팅 컨설팅 제공, 온라인 상세 페이지 제작, 제품 사진 촬영,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2회 등을 지원한다.

이달 29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지원 대상 1순위는 영천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참여 액션그룹, 2순위는 시민 중 라이브커머스를 진행을 희망하는 업체이며 자세한 내용은 영천시 신활력사업추진단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식열 기자 jis92920@hanmail.net

영덕군-경북개발공사, 주거환경 안정화 '한뚝'

공공매입대주택 사업 MOU 취약계층 주거난 해소 등 기대

영덕군은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4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경북도개발공사와 지역 맞춤형 공공매입대주택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매입대주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등에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해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약에 앞서 영덕군은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내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거 양식, 주택 형태, 매입 유형 등을 조사함으로써 지역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으로 이번 사업을 설계했다.

이를 바탕으로 영덕군은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임대주택을 준공하고 같은 해 연말까지 매입 및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번 협약은 영덕군 측에서 지역 맞춤형 공공매입대주택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행정을 지원하고 경북도개발공사 측에서 양질의 주택 건설과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광열 군수는 "지역 맞춤형 공공매입대주택 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효과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거에 대한 문제나 불만으로 지역을 떠나는 군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의 주거 안정은 물론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노환기자 shghks70@naver.com

경산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위촉식

경산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2024년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위촉식을 실시했다.

위촉식은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2명을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와 전담조사관 인사 및 소개, 조사 파견 순번 결정, 조사관 업무 관련 질의응답 등으로 이뤄졌다.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는 지난해 4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2023년 12월 7일 학교폭력사안처리제도 개선 및 SPO(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발표 이후 학교폭력 사안조사, 피해 학

생 지원강화,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을 통한 학교 교육력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의 필요성과 교사가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도입이 요구됐다.

이날 위촉된 12명의 조사관은 퇴직 경찰관과 퇴직 교원, 청소년 관련 단체 봉사자로 구성됐으며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회에 봉사할 기회가 주어짐에 감사를 전했다.

강두용 기자 kwondrumkakao@daum.net

세한금속주방
대표 김효철

경주시 유림로 5번길 133
☎ 054-749-7979

경주시수협 황성지점
지점장 김윤정

경주시 황성로 11
☎ 054-771-0604

KB손해보험 경주지점
조봉래

경주시 화랑로 125 5층
☎ 010-3506-2781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안전 관리 '만전'

군, 부군수 주재 실무위 개최 교통 대책·유형별 조치사항 비상연락 체계 구축 등 논의

울진군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후포항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4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군은 지난 14일 울진군재난상황실에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위원회 회의는 축제 주관 부서의 안전관리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각 분야 전문위원들과 해안가 추락에 대비한 안전관리 전략, 주차 문제 및 긴급차량 통로 확보를 위한 교통 대책 등 유형별 조치사항과 비상연락 체계 구축 등 인파 밀집에 대비한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군은 심의회에서 나온 여러 보완사항들을 안전관리계획에 수정 반영해 오는 21일 경찰, 소방,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 전문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손병복 군수는 "울진의 대표적 명품 브랜드인 대게를 주제로 펼쳐지는 축제인 만큼 관광객과 주민들이 대게와 붉은대게를 비롯해 후포항의 다양한 해산물 먹거리를 푸짐하게 맛볼 수 있

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김상주 기자ksi09102@naver.com

고령군, 우수 군정정책 제안 공모전 실시

5월까지 누구나 신청 가능 소통·공감 참여행정 구현

고령군은 군민의 우수한 정책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해 행정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소통과 공감의 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오는 5월 31일까지 '2024 군정정책 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인구·청년,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군정 추진에 대한 현안 사항이나 행정 운영 개선과 관련된 사항 등 군정발전과 관련된 전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홈페이지 내 제안하기 게시판에서 다운로드해 이메일(gayvi@korea.kr)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접수된 제안은 실무심사·본심사를 거쳐 효율성, 창의성 등을 종합 검토해 우수제안을 채택하고 우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홈페이지를 통한 결과발표와 함께 금상 100만원(1명), 은상 50만원(2명), 동상 30만



원(2명), 장려상 10만원(4명)의 시상 이 이뤄진다.

이남철 군수는 "고령군 발전을 위해 군민이 정책기획자가 돼 직접 참신한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군민이 주인이 되는 젊은 고령! 힘있는 고령!'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기획감사실 기획팀(054-950-60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일호 기자hoyai1515@daum.net

구미교육청, 학원분야 맞춤형 행정으로 건전한 사교육 '확산'

유형·대상별 자료 제공, 운영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비스 개편 무등록 교습행위 대해 엄중 단속

구미교육지원청이 올해 구미지역 학원 분야의 자율적인 건전운영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 행정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내용으로 학원분야의 유형·대

상별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수렴해 △신규 운영자 대상 맞춤형 자료제공 △아파트단지로 찾아가는 개인과외교습 운영 홍보 △학원 등 정기 지도점검 대상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학원 등 선정 △운영자와 담당자간 권역별 소통 간담회 개최 △학원연합회 등 유관 협력체를 통한 실질적인 건전 운영 지원 방안 모색 등이다.

또한 2000여명의 학원분야 운영자가

자료접근과 활용이 용이하도록 구미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비스로 개편했다.

아울러 구미교육지원청에서는 무등록 교습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한다.

블로그, SNS 등 온라인을 포함한 학습자 모집홍보 광고 시 표시사항인 학원명칭, 등록번호, 교습과목, 교습비 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이성희 교육장은 "구미는 경북도 내에서 학원 등이 많고 확장단계의 신규 설립이 증가하는 등 학원 분야에도 변화가 많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이 있는 모든 학원이 안전과 신뢰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한 사교육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올해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익분 기자ub0104@hanmail.net



문경 동로면 "미소왕을 뽑아주세요"

행정센터 방문 민원인 직접 투표 직원들간 친절한 조직문화 조성

문경시 동로면은 '친절 동로 스마일 동로'라는 슬로건으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뽑는 동로면 미소왕 선별을 시작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동로면 '미소왕' 선별은 직원들의 대민친절 개선을 유도하고 친절한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기 위해 시행한다.

동로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민원 처리과정에서 가장 친절하

다고 생각되는 직원들에게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매월 최다 득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매달 미소왕으로 선정된 직원에게는 소정의 격려품을 수여하고 미소왕으로 선정된 공적이 많은 직원에게는 희망부서 우선 배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김동현 면장은 "전 직원이 친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가슴으로, 정성으로, 따스함으로'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항상 진심을 담은 친절 실천으로 온 민민과 함께 웃겠다"라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청송보건의료원 건강체조교실 '큰 호응'

어르신 건강위원 역량 강화

청송군은 청송군보건의료원과 건강위원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건강지킴이가 강사로 활동하는 '건강체조교실'이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체조교실은 건강마을조성사업 지역인 청송읍의 13개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주 1회(총 3회) 운영하고 있으며 자격을 소지한 건강지킴이가 주민 강사가 돼 각 마을의 건강지킴이와 함께 경로당을 방문해 건강체조, 레크레이션(음악·울동·게임) 등을 함께하는 건강프

로그램이다. 청송군보건의료원 건강체조교실은 지역사회 운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생활을 보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주민강사를 활용해 건강위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주민 주도형사업의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윤경희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주민주도형 건강마을조성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참여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청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갑진년 새해에는 모두 복으로 가득하길

김천 평화남산동, 지신밟기 행사

김천시 평화남산동은 지난 14일 갑진년 새해를 맞아 평화남산동의 발전과 동민들의 무사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행사를 했다.

이번 행사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평화남산동 비둘기농약단의 흥겨운 문굿을 시작으로 시의원, 단체장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사를 지낸 후 지역 내 각 기관과 가정, 상가를 돌며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지신밟기는 초혼문 낭독을 시

작으로 축문과 초헌, 아헌, 종헌의 순으로 동장과 단체장이 차례로 절을 올리며 지역 내 동민들의 평안과 안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으며 이후 박성규 농약단장과 단원들이 행정복지센터 내 구석구석을 돌며 지신을 밟아 액운을 몰아내고 복을 부르는 노래를 부르며 정젓굿을 지냈다.

김철환 동장은 "우리의 세시풍속인 지신밟기 행사가 동민들의 화합을 이끄는 기회가 되고 갑진년 새해에는 동민 모두 희망차고 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kgs514@naver.com

더블에이치플랜

DHP

종합이벤트 기획 · 연출 · 진행

대표 현병희

Mobile : 010-3517-1105

E-mail : hbh0912@naver.com

경북 경주시 양정로 235(동천동) 덕양빌딩 7층

촛불 사이 '우리 가곡의 낭만 선율' 이 흐른다

대구오페라하우스, 온라인 홍보단 9기 모집

25일까지 이메일 접수... 국제오페라축제 정보 게재 등 활동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백조홀서 유료회원을 위한 콘서트 개최 LED 양초 밝혀 이색적 분위기 최영섭 '그리운 금강산' 등 감상

지난 1920년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풍미한 흥남파의 '봉선화', 최영섭의 '그리운 금강산' 등 우리 가곡을 낭만적이고 이색적인 분위기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공연에는 소프라노 마혜선, 소프라노 이혜린, 바리톤 임희성, 바이올리니스트 변지은, 피아니스트 전정희가 참여하며 최상무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관장이 사회자로 공연의 해설을 맡아 무대를 더욱 빛낸다.

이번 공연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유료회원에 한해 예매가 가능하다.

유료회원은 '스페셜 회원'과 'VIP 회원'이 있으며 스페셜 회원은 2년간 5만원의 회비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기획공연을 1인 2매까지 20% 할인받고 예매 수수료가 면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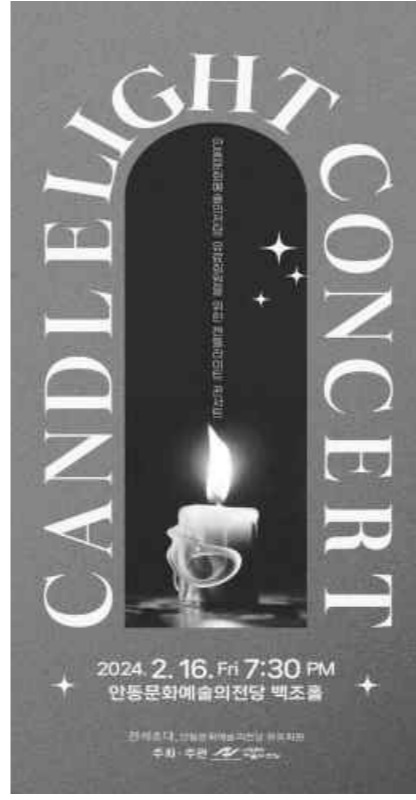
VIP회원은 2년간 10만원의 회비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기획공연을 1인 2

매까지 20% 할인받고 예매 수수료가 면제되며 연 1회 기획공연 초대권을 받을 수 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관계자는 "평소 예술의전당 발전에 도움을 주고 계신 유료회원을 위한 특별한 기회가 되길 바라며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며 "이번 공연 이외에도 유료회원이 회원 등록에 단순 할인 이외의 가치가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여러 혜택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기획공연 '캔들라이트 콘서트'는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유료회원에 한해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 및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유료회원 가입에 관해서는 전화 (054-840-3600)로 문의하거나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명수기자oms727@nate.com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온라인 홍보단 '오페라팬' 9기를 모집한다.

오페라팬(OperaFan)은 오페라와 공연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온라인상에서 대구오페라하우스 기획공연 및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등의 홍보를 돕는 서포터즈를 일컫는다.

서포터즈 활동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다.

이들은 개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대구오페라하우스의 기획공연과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공연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온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블로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블로그 기자',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등 여러 분야로 나눠 선발하며 특히 올해는 외국어 기반 글로벌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홍보' 분야를 신설해 관객층 확대와 극장의 세계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오페라팬'에게는 대구오페라하우스 기획공연과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메인공연 입장권이 제공되며 공연 티켓 추가 예매 시 30%의 특별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활동 ID카드와 수료증이 발급되고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개막 전 열리는 기자간담회에 초청돼 축제 홍보에 도움이 될 자세한 내용을 발 빠르게 제공받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다.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페라팬'은 18세 이상으로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음악, 공연 애호가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설된 '글로벌 홍보' 분야는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어 능통자라면 지원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홈페이지에서 지원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smchoi@dgfc.or.kr)로 접수하면 된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영주 청소년 예술 축제' 젊은 예술가들 꿈과 열정의 무대

17일 오후 4시 댄스·밴드 공연 지역 중·고등 10개 팀 등 참여

위아아티스트(W.A.A, 대표 김진태) 주관의 '영주 청소년 예술 축제'가 17일 오후 4시 영주시민회관에서 개최된다.

영주 청소년 예술 축제는 청소년들의 열정과 재능이 넘치는 댄스와 밴드 공연을 선보이는 문화 축제로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예술적 역량을 격려하고 지역 내 젊은 세대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영주시 소재 중·고등학교 10개 팀의 댄스 및 밴드 공연과 라온제나(경북전문대학교 버싱킹 동아리) 및 한림예술고등학교 뮤지컬팀 등 다양한 초청 공연도 마련돼 있어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축제에는 지역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사람 모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댄스베를' 등 특별 이벤트도 준비돼 있어 재밌는 관람과 함께 다양한 상품도 받아 갈 수 있다.

박남서 시장은 "댄스와 밴드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며, 함께 하는 소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매개체다. 무대 위 젊은 예술가들이 그 특별한 매개체를 통해 반짝일 모습

이 무척 기대가 된다"며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이 녹아든 무대를 통해 시민분들께도 그 꿈과 열정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여성기자bk01410@naver.com

경북교육청 안동도서관, 이익주 교수 강연

경북도교육청 안동도서관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이익주 교수를 초청해 '누가 흥길동을 불쌍하다고 하는가'를 주제로 강연을 개최한다.

이익주 교수는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우리나라 최고의 고려사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어쩌다 어른', '역사저널 그날', '차이 나는 클래스' 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했고 유튜브 채널 '이익주는 역사'를 직접 운영하며 우리 역사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흥길동 이야기를 통해 조선 시대 신분차별과 남녀 차별, 서얼의 역사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도서관 누리집 또는 안동도서관 문헌정보과(054-840-8471)로 문의하면 된다.
오명수기자oms727@nate.com



8471)로 문의하면 된다.
오명수기자oms727@nate.com

좋은 운 부르는 '수호 청룡 킨링' 만들어요

영주 공세계과학관, 17일 체험

영주시 공세계과학관이 17일 방문객을 대상으로 '청룡 킨링 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해 기획된 것으로 디퓨저 블럭을 이용

한 킨링 만들기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참여자들은 용과 관련된 기후 현상인 '용오름(강한 회오리바람으로 상하층의 대기 온도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기후 현상)'에 대해 배우고 용 한 해 자신을 지켜줄 '수호 청룡 킨링'을

만들어 본다.

체험은 총 5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현장 접수로 진행되며 7세 이상(6세 이하의 경우 보호자 동반 시 참여 가능)의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체험료는 1인 2000원으로 현장에서 납부하면 된다.

서중길 기술지원과장은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좋은 운을 가져올 수호 청룡 킨링을 만들어보고 올해도 건강하

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란다"며 "올 한 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공세계과학관에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그 밖의 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세계과학관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공세계과학관팀(054-639-75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여성기자bk01410@naver.com

울진문화예술회관, 영화 '서울의 봄' 상영

울진군은 2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는 22일 영화 '서울의 봄'을 유료 상영한다.

영화 상영시간은 오후 2시, 저녁 7시 30분 2회이고 관람료는 1000원이다.

영화 '서울의 봄'은 12·12사태를 다룬 내용이며 황정민과 정우성 주연으로 두 사람이 정권을 위해 서로 대립하

는 과정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상영 정보는 군청 또는 울진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영화 상영은 울진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보수로 인해 오는 5월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54-789-5454)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주기자ksj09102@naver.com

기부하고~ 혜택받고~ 고향살리고~

칠곡군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 1월 1일 처음 시행하는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기부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칠곡군이 아닌 칠곡군을 응원하는 누구나

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 기부시스템(PC/모바일) - [고향사랑e음](#)
-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대면접수(※신분증 지참)

기부혜택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품 제공

답례품

농특산물, 전통·가공식품, 지역상품권 등

기부 바로가기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문의 | 칠곡군 세무과 ☎ 054-979-6244

㈜벽진건설 대표, 문경에 온기 나눔



김형수 ㈜벽진건설 대표는 지난 13일 문경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벽진건설은 문경읍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로 주택건축, 보수 및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으며 김형수 대표는 평소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또한 성금 기탁 후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시 꼭 연락을 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김형수 대표는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 내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해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유미숙 읍장은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데 도움을 줘 감사드리고 어려운 분들을 더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상주 사벌국면, 체육회 임원회의



상주시 사벌국면은 지난 14일 사벌국면 체육회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2일 개최 예정인 제17회 풍년기원제 및 민민화합민속놀이대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종목 및 마을별 대진 일정을 확인하고 기타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윤호 체육회장은 "제17회 풍년기원제 및 민민화합민속놀이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민민 화합에 앞장서는 체육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찬원 기자changwan12@naver.com

한수원, 소방관 '몸·마음 힐링 센터' 선물

안심이어로 회복차량 전달
냉장고·에어컨 등 설치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난 14일 경주 본사에서 소방관들의 쉼터가 될 차량인 '안심이어로 소방관 회복차'를 경북소방본부 119산불 특수대응단에 전달했다.

한수원은 지난 2022년 말 소방관의 심신 회복을 지원하는 차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을 인식하고 당시 차량이 1대도 없었던 경북도 내 소방관들을 위해 '안심이어로'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소방관들을 위한 회복차는 전국에 15대뿐이며 그마저도 가까운 지역 및 권역별로 공유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수원은 차량을 이용하게 될 소방관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해 내부 구조를 구성한 뒤 차량을 경북소방본

부 119산불특수대응단에 지원했다.

119산불특수대응단은 울진 산불화재가 계기가 돼 지난해 1월 발족한 경북소방본부 산하조직이다.

'안심이어로 소방관 회복차'는 운전석을 포함해 23개 좌석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좌석마다 개인용 콘센트가 설치돼 있다.

산불 화재 같은 장시간 야외 작업을 고려해 신발장, 수납장, 에어컨, 공기정정기, 냉장고, 싱크대 등이 설치돼 있고 야외 운행을 위한 9m의 차량 차양막과 외부 LED등이 설치돼 있다. 작업복에 의한 차량 오염방지를 위한 좌석별 커버도 설치돼 있다.

정용석 한수원 기획본부장은 "어

떠한 재난 상황에도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생하고 계신 진정한 히어로 소방관들을 위해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는 소방관들이 안심이어로 회복차에서 안전하게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성주 가천면, 설맞이 어르신들의 만수무강 기원

성주군 가천면은 지난 14일 기관단체장과 함께 복지회관을 방문해 어르신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합동 세배 및 문안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원 면장을 비롯한 서부지구대장, 서부농협조합장, 이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들이 모여 합동 세배와 함께 신년인사를 나누고 갑진년 한 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가천면 발전을

위한 덕담도 나눴다.

이충기 노인회장은 "해마다 새해인사를 해 줘 고맙다"며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고 앞으로도 가천면 발전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이호원 면장은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지혜를 빌려 더 나은 가천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호 기자hoyai515@daum.net



안동 맑은물관리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 앞장 의성, 중대재해 예방 위해 부서별 '역량 UP'



안동시 맑은물관리과는 지난 14일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상생수' 공급을 위해 용상 반변천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에는 맑은물관리과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버려진 폐비닐과 생활폐기

물 등 방치된 각종 쓰레기를 1.5t가량 수거하고 수질오염 행위를 단속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환경정화 활동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며 청정한 상수원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영수 기자oms727@nate.com



의성군은 지난 14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부서별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41개 부서 주무팀장, 부·읍·면장, 담당자가 참석해 △부서별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강화 △재해예

방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한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이수 △도급·용역·위탁사업 추진 이행사항 숙지 등을 주요 골자로 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부서별 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과 체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동 정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위한 MOU



김종식 경북도교육감은 16일 오전 11시 문경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위한 산·학·관 업무협약식에 참석한다.

경주에 공무원 서포터즈 발대식



주낙영 경주시장은 16일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경주에 글로벌 공무원 서포터즈 발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2024년 나눔의 파발마운동 발대식



최기문 영천시장은 16일 오후 2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24년 나눔의 파발마운동 발대식에서 나눔의 파발마 기 전달식을 갖는다.

한농연 도연합회 임원 이·취임식



윤경희 청송군수는 16일 오전 11시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2024년 한농연 도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2024년 석보면 노인일자리 발대식



오동창 영양군수는 16일 오전 9시 석보면사무소 개회되는 2024년 석보면 노인일자리 발대식에 참석한다.

고령 대가야읍 지보협, 1차 정기회의



고령군 대가야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4일 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활동 실적 보고를 시작으로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간 사업 일정, 추후 실시 예정인 신규 특화사업과 봉사활동,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한 토의를 했다.

특히 신규 특화사업 '사랑의 울림'을 통해 청각장애인용 무선 LED 수신기를 설치, 긴급 상황을 예방한다.

최현숙 민간위원장은 "올해도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이웃들에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일호 기자hoyai515@daum.net



2024 경주문화유산해설사교육

수강생모집

운영기간	2024년 3월 7일 ~ 6월 27일(매주 목 / 16주)	구분	시간	강의장소
수강료	100,000원	오전반	10:00~12:00	서약문화공간 (경주시 서약3길 14)
계좌번호	농협 351-1136-1107-13 (신라문화원)	오후반	19:00~21:00	신라문화원 교육관 (경주시 금성로 254, 축협 2층)
문의접수	신라문화원 054-777-1950			

01 신라의 통일과 화랑

날짜	세부 주제	강사
3월 07일(목)	신라의 통일과 화랑	주보돈 교수 전 경북대 사학과 교수 제12대 경북대 박물관 관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3월 14일(목)	진흥왕	
3월 21일(목)	김춘추	
3월 28일(목)	김유신	

02 신라의 불교 공예

날짜	세부 주제	강사
4월 04일(목)	분황사 석탑의 사리장엄구와 선덕여왕	한정호 교수 동국대학교 교수 전 동국대박물관 전임연구원 전 통도사성보박물관 수석연구원
4월 11일(목)	황룡사 구층탑 사리장엄구	
4월 18일(목)	전 황복사지 석탑과 나원리 석탑의 사리장엄구	
4월 25일(목)	불국사 석탑의 사리장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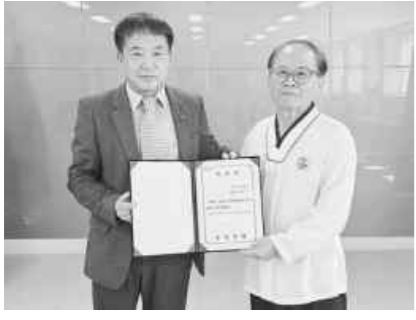
03 신라의 석조 미술

날짜	세부 주제	강사
5월 02일(목)	석탑 1	신용철 관장 양산시립박물관 관장 출신박물관 운영위원 통도사 본말사 문화재위원
5월 09일(목)	석탑 2	
5월 16일(목)	승탑	
5월 23일(목)	당간지주와 석등	

04 유학의 역할

날짜	세부 주제	강사
5월 30일(목)	금오산에 깃든 신라문화	오상욱 원장 경북고전번역연구원 부산대 강의 교수
6월 13일(목)	운곡서원에서 회화학을 익히다	
6월 20일(목)	원사정재와 유학의 계승	
6월 27일(목)	경주유림기로 읽는 문화유산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상주시 동성동에서는 지난 13일 동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참여 기회 증진을 위한 '국학기공 체조'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강좌는 풍부한 경험을 쌓은 한일도 강사에 의해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며 지난 13일부터 오는 6월 27일까지 총 40회에 걸쳐 강좌를 진행한다.

해당 강좌는 지역민들이 각종 스트레스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행복과 건강을 쟁취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개강하게 됐다.

한일도 강사는 "해당 강좌를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석환 동장은 "바쁜 일상생활 중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에 활기를 되찾으며 지역주민들에게 행복과 건강을 되찾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임찬원 기자changwan12@naver.com

울진 금강송면, 노인일자리 발대식



울진군 금강송면은 지난 14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참여자 1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노인일자리사업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발대식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동영상 교육자료를 활용해 활동 중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계절별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중점을 뒀고 더불어 참여자들이 일자리를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소양 교육을 병행했다.

장신중 면장은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니 활동하시는 동안 보람 있고 즐겁게 일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격려와 응원을 전했다.

손병복 군수는 "무엇보다 겨울철 안전사고와 건강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노인일자리의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

영천의 인재 양성을 위한 따뜻한 마음 연이어

더조은 1천만원·케이디 500만원 "더 좋은 환경서 역량 발휘하길"

지난 15일 ㈜더조은에서 1000만원, 주식회사 케이디에서 500만원의 장학금을 (재)영천시장학회에 기탁했다. 본촌농공단지에서 위치한 ㈜더조은은 상·하수처리기계,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영천의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500만원을 기탁을 시작으로 올해도 영천의 인재 양성을 위해 1000만원의 장학금을 (재)영천시장학회에 기탁했다.

황선의 대표는 "지역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



양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미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케이디는 수질·대기 분야 환경시설 전문기

업으로 '지능형 조음파 수도미터' 등의 기술 개발로 스마트워터시티 실현에 앞장서고 있으며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의 축적된 기술을 인정받아 경

북도 물 산업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2000만원의 장학금을 (재)영천시장학회에 기탁해 오고 있다.

정태화 대표는 "평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념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해 왔다"며 "학생들이 내일의 꿈을 키워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기문 이사장은 "어려므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업들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지역 인재들이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석열 기자jsy92920@hanmail.net

재부산성주향우회장, 미래 리더 육성 '힘 보태'

김상기 재부산성주향우회 회장이 지난 14일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에 장학금으로 500만원을 기탁했다.

김상기 회장은 양산시에 소재한 클랩프 등을 제조하는 ㈜S.W 상우클랩프 대표로 재부산성주향우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고향 사랑에 앞장서는 인물로 지난해 500만원 기탁을 시작으로 현재 누적 기탁액이 1000만원에 이른다.

김상기 회장은 "고향을 이끌어 나갈

젊은 인재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해 성주군을 빛내주길 바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고향 성주 교육 발전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병환 이사장(군수)은 "인재 육성을 위해 흔쾌히 장학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수 학생의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김일호 기자hoyai1515@daum.net



고령자봉센터, 봉사단체 간 상호교류 활성화



고령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4일 봉사단체장 및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 간 상호 교류와 자원봉사 문화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자원봉사센터 주요 사업, 단체활동 관련 정보 등을 안내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단체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

시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강하 센터장은 "곳곳에서 나눔 문화를 전파하는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원봉사단체 간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상호정보교류로 지역 실정에 맞는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일호 기자hoyai1515@daum.net

안동 명신새마을금고, 명륜동 이웃사랑 실천



안동시 명륜동 소재 명신새마을금고는 지역환원사업의 일환인 줌도리사업을 통해 지난 14일 라면 100박스 20개를 명륜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명신새마을금고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잊지 않고 라면 및 백미 등의 후원 물품을 명륜동 행정복지센터에 해마다 기부해 오고 있다.

이번 '사랑나눔 라면'은 지역 내 홀

몸 어르신,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국환 이사장은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인걸 동장은 "지역민을 위해 꾸준한 나눔의 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명신새마을금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명수 기자oms727@nate.com

농촌지도자청도연합회, 이·취임식



농촌지도자청도연합회는 15일 제23대 이정호 이임회장과 제24대 최종환 신임회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하수 군수와 김효태 군의회 의장, 장호원 농촌지도자경북도연합회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최종환 신임회장은 "앞으로 3년간 농촌지도자청도연합회는 우애·봉사·창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청도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하수 군수는 축사를 통해 "농촌지도자회원들이 청도농업의 주역으로서 중추적인 역할 수행과 농업대전환을 통해 세롭고 힘나는 청도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종길 기자jzk2929@naver.com

달성 미래세대봉사단, 달콤한 나눔



달성군 미래세대봉사단은 15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현풍읍 행정복지센터에 초코파베기 750개를 전달했다.

신상민 단장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작으나마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오늘 물품을 기부하게 됐고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조양래 읍장은 "지원해 주신 물품은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하겠다"며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 선배들의 따뜻한 마음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 미래세대 봉사단은 지역 내 19세~39세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20년 발족 후 독거노인, 저소득 취약가정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지역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

역사·문화·풍경 속을 걷는 문경 여행의 꽃 문경새재도립공원

백두대간의 절경을 한눈에 즐기는 짜릿함 단산관광모노레일

국내 최초 문화 생태 영상 복합 테마파크 문경에코월드

문경 모든 여행을 담다

전통과 현대, 자연과 문명이 공존하는 생생한 역사와 문화의 보고, 문경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가득하고 1년 내내 색다른 재미를 더하는 축제까지! 문경에 머무는 모든 순간이 추억이 됩니다.

공정의 힘! 문경



새희망, 새영천

“정확한 발굴로 신속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영천, 더 촘촘하고 두터운 맞춤형 복지 구현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복지 정책 대폭 확대
셀프안부폰 '고독사·사회적 고립' 예방
기초생활급여·의료급여 지원을 상향
일·복지 연계 자활근로사업 운영 박차
보훈단체 적극 지원, 호국정신 계승 최선

영천시는 '시민중심 공감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존중·배려 받는 든든한 복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공감 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안전망 구축

영천시는 법,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 신청, 민간복지자원 의뢰 등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연계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위기가구 450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방문 상담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갈 계획이다.

● 지정기탁 성금 활용 시민체감형 시책 추진

시는 지역 내 기부문화 조성에 힘쓰는 결과 지난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모금 우수지자체로 선정, 12월부터 올 1월까지 집중모금기간 동안 총 9억9200만원(198% 달성)을 모금해 역대 최고 금액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기탁된 성금의 일부를 활용해 '저소득층 초중고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을 비롯해 지난해 많은 호응을 받은 '영천형 긴급복지지원', '65세 미만 틀니, 임플란트 지원', '거동불편자 일상생활 불편해소 사업', '결식우려 가정 밑반찬 꾸러미 지원' 까지 총 6개 사업을 시행하고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독사 예방 체계 선제적 구축

최근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영천시는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및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지난해 '영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과 중장년 1인 가구 288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2024년 '셀프안부폰' 사업을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사회복지관과의 협업을 통해 시행되는 해당 사업은 대상자가 1일 1회 자율적으로 지정된 전화번호로 발신해 안부를 확인, 2일 이상 안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읍·면·동 복지공무원이 안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안부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경제성과 효과성을 높였다.

● 더 두텁게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영천시는 시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가구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급여를 지원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맞춤형 급여 대상자는 영천시 인구의 약 7.89%인 7911명으로 연간 약 248억원의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이나 출산에 따른 장제 및 해산급여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맞춤형 급여 형태로 개편된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및 폐지, 재산 기준 완화 등으로 많은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됐으며 올해는 생계급여의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32% 이하) 상향과 역대 최대수준(13.16%) 인상으로 (4인 가구 162만원→183만3000원) 더 많은 취약계층이 맞춤형 복지급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든든한 건강지킴이 '의료급여 지원'

시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 수는 5180여명으로 소액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진료비·약제비를 약 417억원의 의료급여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65세 이상 수급자에게는 틀니 및 임플란트를, 등록 장애인에게는 보조기구 구입 비용과 요양비를 지원하는 등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7월 재의료급여 사업 시범지로 선정됨에 따라 장기 입원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 퇴원 후 지역사회에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 건강강좌 형태로 맞춤형 밀착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일 주거지 내 우울완화 자조모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마음보듬 특화사업을 추진해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에 힘쓰고 있다.

● 일·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시는 경제불황에 따른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01년 보건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으로 지정된 영천시지역사회복지센터는 7개의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과 7개 자활기업 지원을 통해 현재 110여명의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단 발굴과 기존 사업단에 대한 확장 운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 및 소양 교육, 자활사례관리 등 개인별 맞춤형 설계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자활사업 이탈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신속·정확한 조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총력

영천시는 투명·공정한 복지 실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의 각종 공적 보장 자격의 적격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변동 자격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기초생활보장 포함 사회보장급여 신청 8708건을 비롯해 14개 복지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망, 전출입 등 변동사항 4만7896건, 소득·재산 변동사항 4883건의 적격성 심사를 했다.

이는 국세청 등 25개 공적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매월 수시 조사는 물론 연 6회의 단주기 조사, 연 2회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해 면밀하게 이뤄졌다.

또한 복지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의 지속 완화로 복지에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복지재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부정수급 조사단을 구성,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부정수급 조사단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신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대상자 신고 의무 사항'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앞으로도 시는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 및 철저한 자격관리를 통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며 동시에 부정 수급자에 대한 꼼꼼한 조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 방지도 힘쓸 예정이다.

● 따뜻하고 내실 있는 보훈업무 추진

영천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과 예우 향상을 위해 2000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와 15개 보훈·안보·기타단체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위상을 높이기 위해 현충일 추념식, 6·25 기념식, 영천대첩 기념식 등 연중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유족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국가보훈대상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참전명예수당의 시비 부담분을 월 10만원→15만원으로 인상하고 오는 3월 중을 1월부터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 내 15개 보훈·안보·기타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보훈정책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기문 시장은 "지난해 일선 복지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도움이 필요한 세대를 적기에 발굴하고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을 추진한 결과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크게 향상됐다. 이에 올해도 소외되는 이 없이 시민 모두가 걱정은 덜고 행복은 더하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복지전달 체계의 기틀을 바로 세워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식열 기자jsy92920@hanmail.net



나눔캠페인 우수지자체 포상.



보훈가족 한마음대회.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대상자 가구 방문).



영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

칼럼

'땀 버스터'와 가이 김슨 그리고 혐오(下)

임용한
KJ인문경영연구원 대표



2437호에 이어=◆ 준비 안 된 전쟁

이제 불수제비 폭탄은 잊고 새로운 충격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다.

2차 세계대전사에 대해 좀 아는 사람들은 영국의 대표적인 폭격기라고 하면 4발 엔진의 랭커스터나 모스키토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진짜 폭격기 랭커스터가 실전에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42년이 돼서였다. 개전 초에 영국 공군의 주력 폭격기는 이름도 낯선 험넨이었다.

전투기에 폭격기 머리만 잘라 붙인 듯한 이 가냘픈 폭격기는 2차세계 대전이란 거대한 전쟁을 감당하기에는 무리였다. 최대 적재 중량은 간신히 1t이었다. 랭커스터의 1/3이다. 당시 폭격기의 명중률은 형편없었다. 그것까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런데 명중률이 과연 몇 %일까?

다시 말하면 지상에 어떤 크기의 목표물이 있다고 할 때 그 목표물에 유효타를 날리기 위해서는 험넨 몇 대가 몇 발의 폭탄을 어떤 고도에서 어떤 속도로 어떤 밀도로 떨어뜨려야 하는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까? 이 질문은 결코 쉽지 않다.

일단 목표물의 종류가 무수히 많다. 공장, 철도, 터널, 전함, 포대, 비행장, 무기고, 다리, 정유탱

크, 크기도 다양하고 파괴 방법도 가지가지다.

여기에 구름과 안개, 바람, 적의 전투기와 대공포, 기체 고장이 방해할 한다.

폭탄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폭격수가 손으로 걸쇠를 제거하는 원시적인 방법이었다. 1초만 지체해도 폭탄은 목표에서 한참 벗어난다.

김슨의 회고에 의하면 개전 초에 공군은 어떻게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가 아니라 폭격기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조차도 몰랐다.

다음 질문은 더 진지하고 구체적이다.

고공폭격을 하면 폭격기의 희생이 줄어든다. 그러나 명중률은 형편없어진다. 저공폭격을 하면 정확도는 올라가지만 희생이 급증한다.

전쟁이라는 큰 틀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쪽이 전쟁을 끝내기 유리한가? 다시 말하면 적의 목표물이 남김없이 파괴되는 시점과 야근 폭격기나 조종사가 전멸하는 시점이 고공폭격이나 저공폭격이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똑같은 질문이 주간 폭격과 야간 폭격의 딜레마에도 적용된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이 질문에 정답이 나오지 않았다. 실은 월남전이 끝날 때까지도 답이 없었다. 이런 사정은 독일도 마찬가지였다.

김슨이 처음 소속했던 비행대는 1년이 지나자 김슨 한 명만 남았다. 약간의 생존자는 적지에 추락해서 포로수용소에 갇힌 승무원들이었다.

무의미한 죽음이었을까? 아니다. 전쟁은 이토록 엄청난 노력을 들어서 불확실한 성과를 한 땀 한 땀 쌓아가는 피의 작업이다. 게임제인지 이 한 번으로 끝난다? 이런 건 없다. 땀 버스터도 그런 초인적인 노력과 희생을 했지만 성과는 3개월의 정전이었다.

물론 그 3개월의 정전이 독일군의 전쟁 수행에 얼

마나 큰 타격을 줬는지 종전을 몇 시간, 몇 분이나 앞당겼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 방구석 여포들에게 말하고 싶다

김슨이 런던으로 휴가를 갔다. 갑자기 공습이 시작돼 방공호로 갔다.

그때 어떤 여인이 소리쳤다. "당신 전선에서 싸우지 않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김슨은 방공호를 포기하고 폭탄이 떨어지는 거리를 걸었다. 방공호로 들어갔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았다. 그는 수백 번의 사선을 넘었고 83비행대의 유일한 생존자였지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조종사들은 임무에서 귀환하면 맥주바에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곤 했다. 누군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찬다. "전쟁 중에 뭐 하는 짓들이야!". 그들 대부분의 생명이 이들에게서 1년이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알았을까?

불사신 김슨조차도 죽음의 맛을 피하지 못했다.

중전 직전에 그는 전사했다. 땀 공격에 참여했던 동료 승무원들도 거의 전사했다. 김슨이 전쟁 중에도 이런 글을 잡지에 기고한 데는 자신과 동료들이 겪었던 이런 역울함도 원인이었던 것 같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판단하는 경향은 인류 공통의 특성인지도 모른다.

요즘 전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 혐오라고 한다.

혐오의 이유는 옆의 세상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사회가 다원화하고 직업이 많아지고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혐오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겸허해지려는 노력의 상식 밖의 세계에 대한 태도 교육과 계몽이 더욱 절실하다. 뉴스

독자기고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안내

홍승헌
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난 5년(2019년~2023년) 경북도에서는 428건의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118명(사망 4명, 부상 114명), 재산 피해액은 16억 7927만 2000원이다.

화재 발생 주요 원인은 대부분 △전기제품의 합선 △음식물 조리 중 화기취급 부주의 △제대로 끄지 않은 담배꽂초 등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화재의 경우 빠른 확산과 인명 대피의 어려움으로 평소 화재 예방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은 상황에 따라 4가지로 나뉜다.

첫째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대피가 가능한 상황이다.

먼저 화재 발생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이후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과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대피 시 출입문(방화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으며 대피한다.

둘째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화재 발생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이후 아파트에 설치된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한다.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엔 화염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은 상태에서 119로 신고하고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알려 구조를 요청한다.

셋째 다른 곳(아파트의 다른 세대, 복도, 계단실, 주차장 등)에서 화재 발생했을 때 자기 집으로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

화재 발생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세

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은 닫고 119로 신고하며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넷째 다른 곳(아파트의 다른 세대, 복도, 계단실, 주차장 등)에서 화재 발생했을 때 자기 집으로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화재 발생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다. 이후 복도와 계단에 화염 및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 첫 번째 방법의 요령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복도와 계단에 화염 및 연기가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엔 두 번째 방법의 요령에 따라 대피공간 등으로 이동해 119신고 및 구조를 요청한다.

화재 발생 시 우리의 행동 하나에 소중한 생명이 좌우된다. 오늘 당장 가족 모두가 모여 우리 집 아파트에는 대피공간 등이 있는지 대피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란다.

아울러 가정에 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을 설치해 화재 예방에도 적극 동참하자.

사설

총선 전 의료대란 오나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면서도 즉각적인 집단행동 대신 관망세로 돌아선 전공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달 말 현재 재직 중인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3월 말 병원을 이탈할 것이라 전망이 유력하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은 의료대란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다만 정부가 이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압박과 함께 달래기에도 나서고 있어 전공의들이 계획을 실행에 옮길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대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사직서 투쟁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제출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직을 하지 않고 파업 등 집단행동에 참여할 경우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열린 대전협 임시대의원회총회에서는 올해 의대를 졸업하고 이달 말 신규로 들어오는 인턴들이 수련 계획서를 쓰는 시기에 맞춰 각자 사직서를 제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고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명서를 내거나 협의가 된 것처럼 보이면 법적 제재를 당할 것을 우려해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들이 이달 말까지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병원을 바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부가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고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물론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를 병원에서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한 달 후엔 병원에서 강제 근로를 시킬 수 없다.

의협 관계자는 "전공의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직을 막고 강제로 근로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한 달 안에 대체 인원을 뽑지 못한 것은 병원의 잘못으로 인정돼 한 달 뒤 병원을 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이 한달이라는 시간이 병원 측엔 전공의 사직에 대비할 준비기간으로 보고 있다. 응급실, 중환자실 업무와 입원, 수술 등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면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정부 측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에 지난 14일 중앙사수소속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사직서를 내는 사유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항의 표시로 통상적인 것을 벗어나고 개별성을 띠는다고는 하지만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했다면 집단 사직서로 볼 수 있다"며 전공의들을 압박했다.

전공의들은 이와 더불어 수련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과정으로 이뤄지는데 인턴이 되거나 레지던트가 될 때 재계약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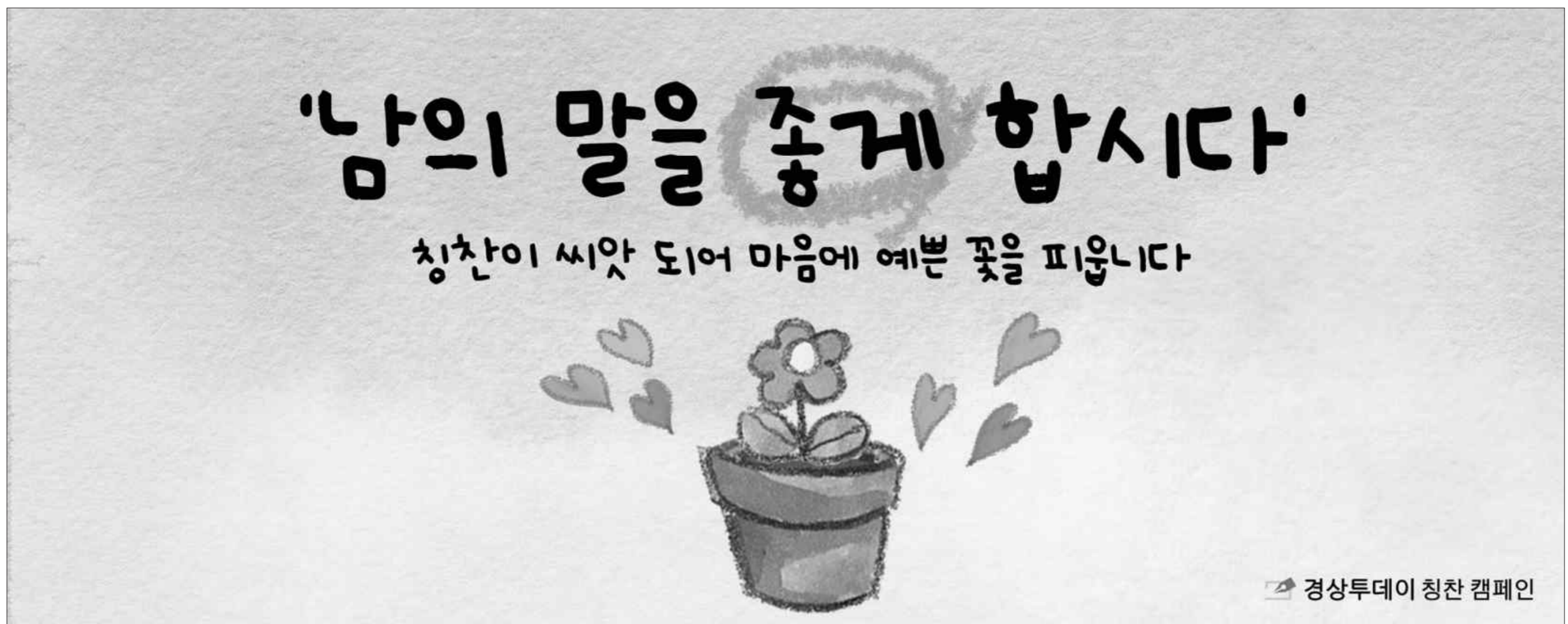
또 레지던트 계약을 1년마다 갱신하는 병원들도 있다.

마침 병원들이 인턴, 레지던트 계약이나 재계약 시점이 대전협이 예상하는 이달 말, 3월 초에 몰려있어 실제 실행에 옮겨진다면 사직서 제출과 함께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전협은 인턴이나 현재 대학생인 예비인턴을 합류시킬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을 포함해야 파괴력이 있다는 게 중론이어서 인턴이나 레지던트 계약 거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상투데이		창간 2014년 3월 31일 등록번호 경북.가100032 http://www.gyeongsangtoday.com	
발행·편집인	이승협	편집국장	박성택
본사 대표전화	(054)748-0070	사회 2부	<구내>1005 판매·광고 (054)748-0070
편집부	<구내>1004	문체부	<구내>1007 경영·관리국 <구내>1006
사회부	<구내>1006	경정부	<구내>1008 F A X (054)748-3333
구독·광고·계보	☎054-748-0070	E-mail	: gst3000@naver.com
*경주시 양정로 255(동천동) 덕양빌딩 8층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당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앞서는 경주

여기에 주차하면 즉시 과태료!



자동차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주변 5m

*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횡단보도 정지선

*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교차로 모퉁이 5m

*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버스정류장 인근 10m

*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경상투데이는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도시 경주 만들기에 동참합니다